

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 14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내년부터 1단계로 2015년까지 국비 2,250억원, 시비 125억원, 민자 625억원 등 총 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광주 R&D 특구 육성사업을 R&D 분야에만 한정하고 연구 인프라 확충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장비 구축과 연구소 설립 및 인재 양성,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등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5+2 광역경제권 수정 보완책으로 부각된 신광주 메트로폴리탄도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나주 공동 혁신도시와 화순을 잇는 광역 철도를 총연장 40km에 지상 고가 경량 전철 방식으로 총사업

비 2조원(국비 75%)을 투입해 건설한다는 기본계획(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 예산 마련, 이용자 수요 확보, 운영비 부담, 전남과의 예산 분담 등의 장애 요인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광주 시립수목원, 영산강 살리기 등 주요 건설 사업들이 있다.

‘시민이 행복한 창조 도시 광주’

한편, 전임 시장의 건설 행정에 대한 논란은 주로 ‘밀실’ 결정, 밀어붙이기, 전시성 사업 등이었다. 신임 시장은 건설사업의 초기 구상 단계부터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 개발 이익의 지역 사회 기여, 창의적인 행정 마인드 등을 제언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행복한 창조 도시 광주’를 기대해 본다.

전남 : 섬·해양·서남해안 개발과 혁신도시 건설

오 병 기 |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재작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시작된 실물경제의 위축이 올해 들어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유럽발 금융위기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 부문에서도 중견 건설업체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남 지역 건설업체도 쉽사리 부진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실물경제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대형 사업을 통한 공공부문 발주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전남에서도 공공부문에서는 지속적인 공사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남은 올 10월의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비롯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2013

년 순천 정원박람회 등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 때문에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토목 공사나 대형 건축 공사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예정이다.

관광레저 도시 건설에 3조원 규모

또한, 전남 도지사의 공약에는 섬 종합개발사업, 해양 마리나 기반시설 구축 사업, 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 건설 및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건설 사업 등 대규모 토목 공사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다.

따라서 전남 건설업 중 공공부문(토목)은 당분간 큰 걱정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전남 지역의 건설업체가 수도권 등 타 지역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시공 능력이 뒤지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제한입찰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를 건의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체가 전남에서 진행 중인 대형 사업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과 도에서 실질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이다.

민간 건축 부진과 지역 건설경기 침체

문제는 민간 건축 공사가 지속적인 부진을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커다란 애로를 겪고 있다.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도산하거나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견 건설사가 이미 수 개사에 달하며, 이 때문에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 전문건설업체도 연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 부문, 특히 건축 부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먼저 스스로 살 길을 헤쳐 나가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는 전남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따

른 건축 시장의 재편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면 단위 소규모 복합 개발사업 유망

전남 지역의 경우, 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 지역에서는 고령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1인 가구다. 이들 가구가 넓은 면적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나 기초적 복지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복지적 관점이나 관리의 관점에서, 읍·면 단위에 문화·복지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이미 행정기관, 보건소(의료), 스포츠시설, 문화시설 등을 클러스터로 조성한 곳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을 줄 안다면, 관주도의 문화·복지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도 소규모 복합 개발사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복합 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업무, 문화, 교육, 레저 등 모든 시설을 한 단지 안에 압축하여 구성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복합 개발사업은 도시 안의 도시 형태로 자족 기능을 갖춘 수직화된 미니 도시 개념이지만, 전남에서는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복합 개발사

전라남도 도지사의 주요 대형 건설사업 공약

사업명	사업비	사업 규모
섬 종합개발사업	8,363억원	전남 목포시 등 12개 시·군 203개 섬
해양 마리아 기반시설 구축	3,100억원	전남 서남해안 일원 10개소(마리나 9, 요트학교 1)
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 건설	3조 3,000억원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 84.5km ²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건설	1조 4,841억원	전남 나주시 금천·삼포면 일원 7.3km ²
남악 신도시 건설	1조 2,910억원	전남 목포시 옥암동, 무안군 삼향면 일원 3.9km ²
순천 신대 국제화 교육도시 건설	4,756억원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3.0km ²

업이 필요하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복합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농산어촌 복합 개발사업을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가 직접 뛰어들어 수행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사회의 후생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전남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

될 공공부문 대형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읍·면 단위의 농어촌 지역에 복합 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업체의 애로를 파악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건설업체는 지역에서 필요한 개발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상생 협력 체계를 지속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전북 : 키워드는 역시 ‘새만금’

이 창 현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하나 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라는 도정 목표를 내걸고 민선4기에 이어 민선5기 전북 도정이 힘찬 출발을 했다. 김원주 도지사는 민선5기 출범식을 통해 “4년 전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 된 심정으로 민선4기를 시작했다면 앞으로 4년은 도민의 소망인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그리고 새만금 조기 개발을 이루겠다”고 강조하여 취임사 대목에서 민선5기 전북 도정의 기본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새만금사업은 앞으로 10년 내에 10조원의 국비 등 총 21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프로젝트로 기대되고 있다.

김원주 도지사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주, 익산, 김제, 부안 등 내륙 및 서해안권을 동북아경제중심 지역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새만금 메가시티를 건설하고 무주, 장수, 임실, 남원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관광휴양지역을 조성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웰빙 도시로 만들겠다는 민선 5기 전라북도 발전 비전도 제시하였다.

분야별 중점 사업 가운데 건설 분야와 관련된 공약 및 현안 사업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사업, 새만금 내부 개발 및 SOC사업, 문화권 특정 지역 및 연담권 관광사업 등을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3개 분야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대주택 1만호 건설

첫째, 민생과 서민을 위한 약속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1만호 건설사업을 펼쳐 저소득층 시민에게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에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현하며 그렇게 될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은 물론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동시에 기대해볼 수 있다.

새만금 내외부 공간 사업

둘째, 거듭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새만금 국책사업